

1950년대 저개발 세계의 기초교육과 시청각교육*

— 유네스코의 활동과 한국 신생활교육원을 중심으로 —

공영민**

〈차 례〉

1. 들어가며
2. 세계적 차원에서의 기초교육 운동과 시청각교육의 결합
3. 유네스코의 한국 활동과 신생활교육원의 설립
4. 농촌교도원 양성을 통한 시청각 교재의 활용과 시청각 미디어의 전파
5. 나가며

【국문초록】

이 글은 유네스코가 저개발 세계에서 수행한 '기초교육'과 이를 보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청각 미디어와 시청각 교재가 활용된 방식을 살펴보고, 기초교육과 시청각교육이 한국에서 진행된 과정과 의미를 신생활교육원과 한국 공보실 영화제작소의 교육영화를 통해 밝힌다. 유네스코가 수행한 세계적인 차원의 교육 원조 활동의 결과로 설립한 신생활교육원은 한국에서 시청각 미디어가 전파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기초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인 신생활교육원의 교육과정과 기관이 배출한 농촌교도원들은 미국이 저개발 세계 원조의 일환으로 진행한 농촌 환경 개선 프로젝트인 지역사회개발사업과 깊은 연관이 있다. 기초교육을 통한 농촌 개조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한국의 농촌지역에서 맞물린 국제기구들의 관계망은 미국과 소련이 냉전의 접경에서 벌인 치열한 경쟁을 대변한다. 농촌교도원들의 교육 활동과 시청각 교재의 활용은 한국 정부 부처와 미국 원조기구가 합자해 생산·배포한 농촌계몽을 위한 교육영화에서 핵심적인 주제로 구성되었다. 1950년대 한국농촌에서 일어난 '기초교육'과 '지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B5A01037697).

**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객원연구원

역사회개발사업'의 조우를 통해 결과적으로 기초교육을 위한 매개로서의 시청각 교재가 한국을 비롯한 저개발 세계에서 영화와 라디오를 비롯한 시청각 미디어의 확산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유네스코, 기초교육, 시청각교육, 시청각 교재, 운크라, 신생활교육원, 기술원조, 기술협조, 지역사회개발사업, 공보실 영화제작소, 교육영화, <농부를 돕는 사람들>, <가정교도원>

1. 들어가며

1957년 12월, 수원에 위치한 신생활교육원이 신문과 라디오를 통해 학생모집을 공고했다. 1956년 10월 29일 완성한 이 교육원의 3기생 모집 공고였다. 신생활교육원은 모집 취지로 “본 교육원은 「운크라」의 원조에 의하여 설립된 것이며 「유네스코」에서 파견한 외국인 교수와 한국인 교수의 지도로서 한국농촌·사회에 필요한 농촌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함”이라고 밝혔다. 2년 과정의 이 교육원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남녀 34명을 전국 각지에서 모집하는데, 1차 시험인 필기고사도 날짜를 달리해 전국 각지에서 진행한다고 명시했다. 시험 과목은 국어, 사회생활, 논문, 영어, 구술이었으며, 구술은 2차 시험인 면접을 가리켰다. 합격 특전으로는 입학생 전원이 식당 부설 기숙사를 무료로 이용하고, 졸업 후에는 특수교사로 인정해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는 국가 기관, 국가 기관급의 외국 기관, 지방행정·교육 기관 등에 취직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¹⁾ 합격한 이들은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며 2년 동안 교육과정을 밟게 될 예정이었다.

이 간략한 모집 공고에는 다량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전쟁으로 붕괴된 한국의 재건을 위해 설치된 운크라(국제연합한국재건단)가 전쟁 후 한국

1) 『동아일보』, 1957년 12월 17일, 1면. 참고로 2기의 경우 251명이 지원했고, 그중 169명이 이틀에 걸쳐 수원에서 면접을 본 후 여성 6명, 남성 18명의 학생이 선발됐다. 이를 통해 경쟁률을 예상해 볼 수 있다. “Brief and Final Report on activities at the Korean Fundamental Education Center”, 31st July, UNESCO, 1959. 출처: UNESCO, UNESDOC Digital Library, <https://unesdoc.unesco.org/library> (이하 UNESDOC Digital Library).

농촌사회를 위한 교육 기관을 설립했다는 것과 국제적인 교육문화 기구인 유네스코가 한국의 농촌교육을 위해 외국인 강사진을 파견한다는 것, 입학 자격 조건으로 대학 졸업 이상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 전국 각지의 청년들을 모집한다는 것, 졸업 후 서울과 대도시가 아닌 지역사회로 돌아가 농촌지도자로 일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원 수원의 기관에서 기숙하며 무료로 교육받는다라는 것이었다. 요컨대 운크라와 유네스코가 한국의 문교부와 함께 제도권의 학교 교육이 아닌 농촌 사회를 위한 특수 교육을 원조 사업으로 시행하며, 농촌의 지역민들을 교육하기 위해 농촌 출신의 인력을 선발한다는 것이었다. 모집 공고에 담긴 이 정보는 한국전쟁 후 피해 복구를 위한 구호 위주로 원조 사업을 펼치고 있던 운크라와 유네스코를 비롯한 원조기구들이 농촌의 소단위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교육 활동을 통해 한국사회의 재건과 부흥을 견인하고자 한다는 목표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발족한 유네스코(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는 유엔(국제연합, United Nations) 산하의 국제기구로서 냉전체제에 발맞춰 평화와 안보를 위해 교육과 과학 그리고 문화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저개발 세계에서 문맹을 퇴치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세계평화와 안보 유지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제도권 밖의 사람들에게도 평등하게 기본적인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원조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네스코는 시청각 미디어와 시청각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위의 모집 공고 매체로 활용한 신문과 라디오를 비롯해 영화와 슬라이드, 그림과 사진, 잡지와 책자들, 리플릿, 음반 등 다양한 시청각 자료들이 교육 원조 활동을 위한 교재로 활용되었다. 이와 같은 시청각 교재들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묶여 교육 콘텐츠에 포함되었다. 유네스코는 저개발 세계의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견인할 수 있는 교육 원조 활동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농촌지도자 양성 교육 기관을 설립했다. 신생활교육

원은 1951년 라틴아메리카의 교육 원조를 위해 멕시코에, 1952년 아랍의 교육 원조를 위해 이집트에 설립한 교육 기관의 연장선에서 설립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계획은 1953년 2월, 운크라-유네스코 교육계획사절단이 발표한 『한국의 교육재건: 유네스코-운크라 교육계획 사절단 최종보고서』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 결과적으로 세계적인 차원에서 제안된 유네스코의 교육계획이 전쟁 후 실현된 것으로, 신생활교육원이라는 존재 자체가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양 진영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냉전의 중심에 처한 한국의 상황을 보여주는 증거였다고 볼 수 있다. 유네스코의 신생활교육원을 통한 교육 원조 사업은 여러 형태로 한국 내에서 진행되고 있던 농촌 원조 사업과 연계되며 진행되었다. 모집 공고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농촌 사회의 개선을 위한 지도 활동은 한국 정부 부처와 외국 원조 기관, 지방 행정·교육 기관이 맞물리며 진행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원조 사업 및 국가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들의 관계는 한국 정부 기관인 공보실 영화제작소가 제작한 농촌계몽을 위한 교육영화에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이 글은 상기한 유네스코와 운크라를 비롯한 국제기구들 및 미국의 원조 기구들과의 관계망 속에서 유네스코가 저개발 세계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한 ‘기초교육’과 이를 보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시청각 미디어와 시청각 교재를 활용한 방식 그리고 이러한 교육이 한국에서 진행된 과정과 의미를 신생활교육원과 한국 공보실 영화제작소의 교육영화를 통해 추적한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시청각 미디어가 전파된 배경에 유네스코가 벌인 세계적인 차원의 교육 원조 활동과 미국이 저개발 세계 원조의 일환으로 진행한 농촌 개조사업이 있고, 결과적으로 이 원조 사업들이 교육 계몽 매개로 활용한 시청각 교재가 1950년대 영화와 라디오를 비롯한 시청각 미디어의 확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밝힌다.²⁾

2) 유네스코의 기초교육과 시청각교육 그리고 신생활교육원과 관련한 선행연구로는 한봉석, 『1950년대 말 농촌지도의 한 사례-지역사회개발사업 현지 지도원의 활동을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19), 2008; 김희운, 『시어도어 코넬트와 냉전 초기 한국의 영화 문화』,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사연구소 엮음, 『이방인이 기록한 전후 한국, 영화: 시어도어 코넬트 컬렉션』, 2015; 이순진, 『한국

2. 세계적 차원에서 기초교육 운동과 시청각교육의 결합

저개발 세계에서 시청각교육을 통해 시청각 미디어가 전파되는 양상을 정리하기 위해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기초교육이 확산된 배경과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초교육(Fundamental Education)’이라는 용어와 그 중요성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기구들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대두되었다. 유네스코가 중심이 된 교육 원조 활동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는 1945년 이전까지는 중요한 문제로 간주되지 않았던³⁾ 전 세계의 문맹률이 새로운 교육 방안에 대비해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본 교육’의 개념과 방법이 정비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유네스코는 ‘대중 교육(mass education)’, ‘기본 교육(basic education)’ 또는 ‘보통교육(popular education)’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용어로서 ‘기초교육’을 제안했다.⁴⁾ 그리

전쟁 후 시청각 미디어의 배치와 냉전의 미디어 네트워크, 『한국학연구』 vol. 48, 2018; 오준호, 『한국 영화제도의 형성과정: 유네스코의 기초교육 프로그램과 교육영화를 중심으로』, 『문학과 영상』 Vol.19, no.2, 2018 등을 들 수 있다. 한봉석의 연구는 신생활교육원에서 훈련받은 농촌교도원들의 구술을 바탕으로 현지에서 수행된 농촌지도 사례를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문서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는 지역사회개발사업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 연구이고, 이순진의 연구는 한국전쟁 후 국제적인 원조기구들이 전후 황폐한 상태의 한국에서 미디어 환경을 새롭게 구축하는 상황에서 갈등, 협력, 교차하는 양상들을 추적한 의미 있는 연구이다. 김희윤의 연구는 1950년대 전쟁과 복구, 재건의 국면 속에서 한국에서 활동한 미국 영화인 테드 코너트가 접촉하고 있는 다양한 원조기구들을 통해 냉전 초기 한국의 영화 환경을 새로운 시각에서 정리한 글이다. 오준호의 논문은 유네스코의 기초교육과 교육영화가 한국의 영화 제도 형성에 끼친 영향을 신생활교육원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 기관을 통해 정리함으로써 영화 제도 연구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연구이다. 본 논문은 시청각 미디어의 전파·확산을 국제 원조기구들의 저개발 세계 교육 원조 활동과 농촌개몽을 위한 원조 사업과 연결한다는 점을 위의 연구들과의 차별점으로 둔다.

- 3) 유네스코 창설 이전 정부 기관들과 교육자들은 즉각적인 정책 실현에 있어서 읽고 쓰는 능력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일례로 유네스코의 제2대 교육국장을 역임한 C. E. 비비(Beeby)가 “나는 수년간 교육에 대해 강의했지만 1945년 이전에 세계의 절반이 문맹이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언급했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가 알고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럽다.”라고 회고할 정도로 문맹과 문해력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았다. 유네스코가 기초교육의 방향과 방법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제2차 세계대전 중 심리전에 대비해 조사 연구한 전 세계의 문맹 현황 등의 자료 등을 참고하기 시작했다. *50 years for education*, UNESCO, 1997, p. 121; “Fundamental Education Common Ground for all People”, UNESCO, Paris, March 21st, 1947, pp. 1~3, 출처: UNESDOC Digital Library, Document code: EDUC/9, EDUC/10.
- 4) Kuo Yu-Shou, *Fundamental Education: Common Ground for All Peoples*, 1947, *50 years for education*, UNESCO, 1997, p. 121에서 재인용. 참고로 Kuo Yu-Shou는 1946년부터 1948년까지 유네스코 초대 교육국장을 역임했다.

고 전 세계적으로 기초교육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문맹에 대한 대비책의 하나로써 시청각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원조기구들은 기초교육의 전파에 시청각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고, 교육 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자료들로 영화, 라디오, 슬라이드, 그림, 사진, 잡지, 리플릿 등으로 구성되는 ‘시청각 패키지 프로그램(audio-visual package program)’을 포함하기 시작했다.

기초교육의 정의와 목표, 방법과 확산 경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유네스코의 설치 배경과 목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유엔과 그 산하의 기구들을 통해 저개발 세계에서의 교육이 원조 활동의 주요 부문으로 구성됨에 따라 유네스코는 기구의 성격에 걸맞은 교육과 과학 그리고 문화 활동을 국제적 차원에서 협력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제안하고 개발한 기초교육이 저개발 세계에서 확대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1945년 11월 유네스코 준비위원회에서 유네스코헌장을 채택해 1946년 11월 발족한 유네스코는 기구 설치의 배경에 “예술과 인문과학 그리고 문화의 교류와 협력이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 그리고 복지를 증진”해 “세계 안보와 평화에 이바지”한다는 목표가 바탕이 되었음을 밝혔다.⁵⁾ 기구의 목적은 (1) 세계평화의 기초가 되는 국제기구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해 세계인의 삶과 문화, 예술, 인문과학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2) 인류 공통의 필요에 봉사하기 위해 전 세계의 지식과 문화를 확장하고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경제적 안정과 정치적 안보 그리고 복지를 보장하는 데 협력하는 것⁶⁾이라고 정의했다. 다음으로 유네스코의 기능은 기구가 취해나가야 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을 담았다. 그중 인적·물적 교류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라디오와 영화, 출판물과 언론매체 등을 통해 지식의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항목과

5) “Conferenc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Held at the Institute of Civil Engineers, London, from the 1st to the 16th, November, 1945”, UNESCO, 1945, p. 1, 출처: UNESDOC Digital Library, UNESCO Document code: ECO/CONF/29.

6) Ibid.

각 나라에 적합한 교육계획과 문화 계획을 수립하고 자료를 개발하고 만든다는 항목⁷⁾은 기초교육 및 시청각교육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계획안과 더불어 1948년 12월 10일, 제3회 유엔 총회에서 발표된 ‘세계인권선언’의 ‘교육의 권리’⁸⁾에 담긴 함의가 유네스코가 내세우는 교육 목표와 그 의미를 공유하면서 ‘기초교육’과 관련한 활동 방향 또한 더욱 구체화 되기 시작했다. 요컨대 세계의 “암흑시대(dark zone)”⁹⁾ 즉 저개발 세계의 문해력이 없는 사람들을 일깨우는 것이 유네스코의 활동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냉전의 시작과 함께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양 진영이 치열하게 패권 경쟁을 벌이게 된 접경 지역들에서 교육을 통한 접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기초교육의 골자는 “기다릴 여유가 없는 사람들(those who could not afford to wait)”¹⁰⁾을 대상으로 한 ‘긴급한 교육’으로서 ‘아동부터 성인까지 문해력이 없는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교육을 평등하게 제공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1946년 유네스코 준비위원회가 새로운 시대의 기본 교육으로서 기초교육의 개념과 방법을 심도 깊이 연구해 정리한 보고서는 1947년 『기초교육(Fundamental Education: common ground for all peoples)』이라는 동명의 책자로도 발간되었는데, 이 보고서에서 기초교육은 민주주의에 기반한 평등하고 보편적인 교육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기초교육을 환경의 개선

7) Ibid.

8) 세계인권선언 제26조 ‘교육의 권리’에 담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도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2. 교육은 인권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와 인종 또는 종교 집단 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 3.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함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진다.

9) Julian Huxley, “15th session of the 1946 Preparatory Commission”, *Fundamental Education: Common Ground for All Peoples*, 1947, *50 years for education*, UNESCO, 1997, p. 121에서 재인용. 참고로 Julian Huxley는 유네스코 준비위원회 간사를 거쳐 1946년부터 1948년까지 유네스코 초대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10) Ibid., p. 26.

을 통해 근본적으로 인간의 위상을 향상할 수 있는 세계적 운동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민주주의의 원칙하에서 국가 간, 기구 간의 상호 원조와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¹¹⁾ 이 보고서가 발표되고 몇 달 후인 1947년 11월에 열린 제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기구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와 연계해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기초교육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에 따라 1948년부터 1951년까지 유네스코는 회원국들과 합자해 기초교육과 관련한 34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프로젝트들을 수행하면서 유네스코는 기초교육을 위해 기존의 미디어 활용을 연구하는 동시에 새로운 교육법과 미디어를 개발하고 시험했다.¹²⁾ 일례로 기초교육을 주제로 전문가 회의¹³⁾를 개최해 시청각 미디어를 어떤 방식으로 교육 자료로 활용할 것인지, 시청각 교재의 범주에는 어떤 자료들을 포함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을 교육 훈련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등을 논의해 교육 방향과 방법을 정비해나갔다.

저개발 세계의 환경을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기초교육이 도입된 데에는 유네스코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점 또한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에 유네스코는 재원의 범위와 활동 영역을 넓히는 방법으로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등의 유엔 자매기관들과 협력했다. 그러면서 중국, 아이티, 탕가니카(Tanganyika), 페루 등의 저개발 국가에서 기초교육을 위한 시범 사업이

11) “Fundamental Education Common Ground for All Peoples”, Op. cit., pp. 1~13.

12) “Summary description of associated projects in fundamental education”, UNESCO, Bangkok, 26th, November–10th, December, 1951, p. 2. 출처: UNESDOC Digital Library, Document code: REG.CONF.II/6, WS/091.23.

13) 1947년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기초교육 전문가 회의’에서는 기초교육에 대한 접근 방법, 중국, 아이티, 아프리카 등에서 진행할 기초교육 활동과 연구 방법 등으로 의제를 설정하고 향후 계획과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1948년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열린 ‘유네스코 기초교육 전문가 회의’에서는 라디오와 영화, 텔레비전 등 기초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중 매체에 대한 심리적 배경을 심도 깊이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는 이 시기 진행 중이거나 기획 중인 저개발 국가들에서 제작 혹은 배포할 시청각 매체에 대한 접근 방법을 논의하고 조정하기 위함이었다. “Meeting of Experts on Fundamental Education, Paris, 17, 18, 19 April 1947”, UNESCO, 1947; “Fundamental Education Meeting of Experts, 26th April to 1st May 1948”, UNESCO, 1948, 출처: UNESDOC Digital Library.

시작되었다.¹⁴⁾ 또한 미국의 트루먼 행정부가 계획하고 있던 저개발국 기술 원조(technical assistance) 프로젝트인 ‘포인트 포(Point IV)’와 연계하여 기초교육 사업의 외연을 확장했다.¹⁵⁾ 1949년 1월 트루먼 대통령의 연두교서에 ‘선진국들이 저개발 국가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포인트 포 사업 계획이 포함되자, 1948년부터 1952년까지 유네스코 제2대 사무총장을 지낸 하이메 토레스 보데(Jaime Torres Bodet)는 즉시 실무팀을 구성해 트루먼 행정부에 저개발 세계의 원조 사업과 관련한 계획을 제안했다. 유네스코를 비롯한 유엔 산하의 국제기구들이 재원과 영역을 확장해 세계적인 차원에서 원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패권국인 미국의 원조 사업과 결합해야 한다는 재빠른 대응의 결과였다. 유네스코의 제2대 교육국장에 취임한 비비(C. E. Beeby) 또한 실무팀에 합류해 유네스코가 포인트 포 사업의 기술원조 프로그램들과 협력할 수 있는 사업안을 작성했다. 그리고 이 사업안은 이후 유네스코가 아시아와 중남미 그리고 아프리카의 저개발국에서 진행한 기술원조 프로그램들과 기초교육 프로그램들의 기초가 되었다.¹⁶⁾

트루먼 행정부의 포인트 포 사업은 1950년 6월, 국제개발법(Ac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에 의거해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았고, 1950년 9월, 운영 책임 기관으로 미 국무부가 선정되고, 같은 해 10월, 미 국무부 산하에 포인트 포 사업의 운영을 책임질 기술협조처(Technic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TCA)가 설치되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었다.¹⁷⁾ 1953년까지 TCA 산하에서 진행된 포인트 포 사업은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미 국무부 외부에 독립 기관으로 설치한 대외활동본부(Foreign Operations Administration, FOA)로 흡수되었고, 1955년에는 저개발국 기술협조(technical cooperation)를 주관한 국제협조처(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이하 ICA)로 이

14) *50 years for education*, UNESCO, 1997, pp. 121~122.

15) C. E. Beeby, *The Biography of an idea: Beeby on Education*, wellington, Council of Educational research, 1992, *50 years for education*, UNESCO, 1997, p. 227에서 재인용.

16) Ibid.

17) 한봉석, 「1950년대 미국의 대한 기술원조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2017, 38~41쪽 참조.

관되었다. 1950년대 한국에서도 유네스코와 미국의 대외원조 기구들이 기초 교육과 기술원조 및 기술협조 사업의 협력 기구로 등장했음은 물론이고 시청각교육과 시청각 미디어 관련 기술원조와 기술협조 사업에서도 이 기구들의 프로젝트들이 유네스코의 기초교육 프로그램과 교차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유네스코가 한국에 설립한 기초교육 지도자 양성 교육 기관인 '신생활교육원'이다.

3. 유네스코의 한국 활동과 신생활교육원의 설립

이 장에서는 유네스코가 한국에서 기초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나가는 과정을 '신생활교육원'을 통해 알아본다. 신생활교육원 설립 과정을 통해 유네스코의 기초교육과 기술 지원이 미국의 대한(大韓) 원조 사업인 '기술원조' 및 '기술협조'와 맞물리는 지점을 밝혀냄으로써 유네스코가 미국의 원조기구들 그리고 한국의 정부 부처와 어떠한 방식으로 유기적 관계를 맺었는지를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시청각교육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고찰한다.

한국은 1950년 6월 14일 제5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정식회원국으로 가입했다. 1953년 7월 6일에는 대통령령으로 '한국유네스코위원회 설치령'을 공포하고, 1954년 1월 30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창립했다. 1946년 창설 이후 냉전체제로의 전환에 맞춰 국제적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던 유네스코는 1950년 전쟁이 발발한 한국에서 긴급 조치를 통해 '구호(relief)' 활동을 펼쳤다. 1950년 12월 1일에는 유엔 산하에 전쟁으로 붕괴된 한국의 재건을 돕기 위한 특별 임시기구로 국제연합한국재건단(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UNKRA, 이하 운크라)이 설립되었다. 한국전쟁기, 긴급한 구호사업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운크리는 1953년 2월, 유네스코와 함께 한국 사회의 재건과 부흥(recovery)을 위한 교육제도의 현황과 개선책을 기록한 「한국의 교육재건: 유네스코-운크라 교육계획 사절단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운크라-유네스코 교육계획사절단은 초등교육

부터 대학교육에 이르는 공교육의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제안과 계획뿐만 아니라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학교 밖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기초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운크라와 유네스코는 기초교육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으로 기초교육 지도자 양성기관 설립을 제안하고 원조자금 173,776달러를 배정했다.¹⁸⁾

사절단이 제안하는 교육 기관의 목적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지역사회의 지도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절한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한국의 성인교육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문맹을 퇴치하고 문해력을 높이는 교육만으로는 생활이 개선되고 사회가 발전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사절단은 한국의 지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과 사회가 당면한 문제와 발전 방향에 관심을 두고 열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교육의 원칙을 숙지해 건강, 위생, 가정생활 등 일상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기초교육 기관은 실무를 위한 훈련소 역할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영구적인 실험소가 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리고 한국 정부 부처 및 외국 원조 기관들과 협조해 기관의 실무적인 운영방안을 조정할 수 있는 방향을 제안했다. 일례로 전 세계 어디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기초교육 과정 전반, 즉 농촌경제, 오락, 보건 및 위생, 가정생활, 시청각 교재 교육, 기초교육의 일반 이론 및 실습으로 구성되는 6개 과목의 교육과정과 기관의 관리·운영에 대한 노하우는 유네스코가 전수하지만, 한국 정부 부처 및 원조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해야 하는 기관의 체계 관리와 한국 사회의 특성을 파악해야 하는 인문학 분야의 교육은 한국의 문교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¹⁹⁾

전쟁 후 이와 같은 제안에 기반해 한국의 기초교육 지도자 양성기관이 가

18) UNESCO/UNKRA Educational Planning Mission to Korea, "Rebuilding Educ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Final Report of the UNESCO/UNKRA Educational Planning Mission to Korea", UNESCO, 1953, pp. 69~71, 출처: UNESDOC Digital Library, Document code: WS/023.14.

19) Ibid.

시화되었다. 운크라와 유네스코 그리고 한국 정부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기초교육 센터는 ‘신생활교육원(Korean Fundamental Education Center, KORFEC)’이라는 명칭을 부여받았다. 기초교육이 아닌 ‘신생활교육’이라는 명칭은 당시 한국이 직면하고 있던 특수한 상황에서 등장했다. 이 기관명은 해방 이후 정부 주도로 진행된 ‘생활개선을 위한 실천 운동’으로서 ‘신생활 운동’의 지향점을 공유한 결과로 보인다. 해방 직후 지역과 단체 중심으로 전개되던 신생활운동은 1947년 문교부가 중심이 되어 신생활조직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물심양면으로 피폐한 국민 생활을 재건하기 위해 관민 총동원으로 신국민 생활 건설을 목표”²⁰⁾로 삼으며 관 주도 중심의 운동으로 변화했다. 1948년에는 “건전하고 명량한 민주국가 사회를 실현할 것을 목표”로 각본, 작사, 표어 등을 현상 모집하는 등 선전과 동원을 통해 대중운동화 하려는 모습도 보여주었다.²¹⁾ 이후 신생활운동은 ‘허례의 폐지, 복장의 간소화, 미신 타파’ 등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환경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1950년 2월에는 “식생활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자치의 폐습을 버려 조국 통일에 이바지한다는 취지” 아래 ‘신생활3개년계획’을 수립했다.²²⁾ 신생활교육원 설립이 가시화된 1955년, 신생활운동은 여전히 정부 주도로 생활개선을 장려하고 있었지만 형식적인 면에만 치중한 형국이었다. 무엇보다 이 운동은 도시 이외에 면, 리에 이르는 소단위 지역까지 영향을 미쳐 근본적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주도로 ‘국민 생활의 개선을 목표로 전개하는 운동이었기에 한국에서 기초교육이 신생활교육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만의 명칭을 부여받았지만 1959년 9월 한국 정부에 이양될 때까지 기관의 전체적인 기획과 운영 실무는 유네스코가 담당했다.

20) 「국민생활을 재건」, 『동아일보』, 1947년 11월 19일, 2면.

21) 「신생활운동작품 시에서 현상모집」, 『경향신문』, 1948년 3월 17일, 2면.

22) 「신생활3개년계획수립」, 『조선일보』, 1950년 2월 25일, 2면. 실천요령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의식주 생활의 간소화 ▲복장의 간소화 ▲절미(節米)운동 전개 ▲주거의 간소화 ▲도보여행 ▲허례 폐지 ▲자원 애호 물자 소비 절약과 폐물 이용 ▲저축장려.

이에 따라 업무의 핵심인 교과 과정 구성, 강의와 실무 훈련 등은 유네스코의 계획하에 이루어졌다. 신생활교육원은 1956년 11월 개원 즉시 전국적으로 교육생을 모집했다. 그리고 2년 과정의 장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본격적인 기초교육 지도자 양성에 들어갔다. 물론 교육과정에는 시청각 교재의 활용을 훈련하는 시청각교육이 필수 과목으로 포함되었다. 유네스코는 기초교육 전문가들과 시청각교육 전문가를 강사진으로 꾸리고 농촌 생활을 개선할 지역사회의 리더들을 양성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신생활교육원의 목표와 활동은 미국의 대외원조 사업인 기술협조 프로젝트들과 맞물리며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조율되었다. 졸업생들은 지역사회의 지도자로 활동하며 지역민들에게 기초교육을 전파했는데, 이 과정에서 교육원에서 훈련받은 시청각교육과 시청각 교재를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했다.

한국적인 상황에 맞춰 출발한 이 기관이 유네스코뿐만 아니라 미국의 원조 기관들 그리고 한국 정부 부처와 어떠한 방식으로 연계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설립 위치와 시기 그리고 국내에서 결합한 원조 사업을 살펴보아야 한다. 운크라-유네스코 교육계획사절단의 최종보고서에서 충청남도 조치원으로 제안되었던²³⁾ 센터의 설립 지역은 전쟁 후 경기도 수원시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인근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사업 예산으로는 시설 원조 186,000달러와 기술원조 114,000달러가 배정되었다.²⁴⁾ 센터의 면적은 6,733평으로 강의가 진행되는 메인 건물과 여성용과 남성용 기숙사 2동, 목욕탕, 5동의 스태프 숙소, 차고, 자전거 보관소 등이 세워졌다. 강의동에는 두 개의 강의실, 도서실, 세미나실, 보건위생과 가정실, 시청각교육 워크숍이 진행되는 스튜디오와 암실, 원장실, 사무실과 비서실, 스태프실, 매점 등이 들어섰다.²⁵⁾ 이 지역이 최종 선정된 배경에는 대학 및 연구 기관과의 연계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과 인접한 농촌지역에서 실습과 현장 조사가 용이하다는 점이 이점으로 작용했다. 일례로 센터에 인접한 중앙농업기술원은 1955년 운크라가 특별기

23) Ibid., p. 73.

24) 이창익, 「1950년대 미국의 대한교육원조와 교육계의 동향」,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04, 36쪽.

25) Howard Hayden, "Report on the Korean Fundamental Education Centre", UNESCO, 15th, June, 1957, p. 1, 출처: UNESDOC Digital Library.

술지원 프로젝트(Special Projects and Technical Assistance)로 설립한 수경 재배장을 포함하는 연구 기관으로 한국 농림부가 운영하는 주요 농사시험장 중 하나였다.²⁶⁾ 또한 2년의 정규 과정 중 1년은 센터 내에서 교육을 받으며 인근 농촌에서 사회조사(social survey)를 하는 것이 프로그램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환경상으로도 유리한 지역이었다. 참고로 정규 과정 중 나머지 1년은 센터 내 교육을 받으면서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²⁷⁾

1956년 7월에 시작한 공사는 10월 29일 끝났다. 1956년 11월 12일 유네스코의 스태프들이 도착했고, 1956년 11월 19일 모집 공고를 통해 발탁된 1기생 24명(남성 18명, 여성 6명)이 입학했다. 센터의 수용 학생 수는 60명으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1957년 4월에 추가로 24명을 선발했다. 2년 정규 과정에 소속된 학생이 48명이었고, 나머지 12명은 단기 과정에 배정된 인원이었다.²⁸⁾ 단기 과정은 현직 교사들과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 과정의 수강생들은 추후 지역사회의 리더들이 될 정규 과정생들과 함께 운크라와 유네스코가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던 농촌지역의 기초교육 활동과 연계될 인력이었다. 운크라와 유네스코가 한국에서 수행한 농촌지역 사업은 미국 원조 당국이 지원하고 있던 지역사회개발사업(Community Development), 4H 클럽 활동 등의 다양한 농촌개선 사업들과도 연계되었다. 예컨대, 1920년대 후반 YMCA가 소개해 시작했으나 보급되지 못하다가 1947년 미군정관 찰스 앤더슨(Charles. A. Anderson)의 협조로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재시작된 4H 클럽은 한국전쟁 후 한국 정부 부처와 한미재단(the American-Korean Foundation) 등 관민 기관의 지원과 원조를 받아 농촌 사회를 개선하고자 했다. 지역사회개발사업은 미국의 핵심적인 원조 사업 중 하나로 농촌 사회

26) Ibid: 이 수경 재배장은 운크라와 한미재단의 공동원조계획으로 설치되었다. 『수경 재배장 30일 인수식』, 『조선일보』, 1955년 8월 31일, 3면.

27) *Report of the Agent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for the period 1 July 1956 to 30 June 1957*, Vol. 26, File 2, New York, 1957, p. 17, 소장처: LAC(캐나다 국립문서보관소-도서관),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자료접속코드 ACA020_01_02C0029.

28) Howard Hayden, Op. cit., p. 3. 참고로, 헤르난데즈의 1959년 7월 31일 보고서에는 제2기 교육생으로 여성 6명과 남성 23명, 총 29명이 입학했으나, 2명의 여성과 6명의 남성이 자퇴해 최종적으로 21명이 졸업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원장인 헤이든의 보고서를 따랐다.

의 개편과 개선을 통해 생활환경부터 가치관에 이르기까지 미국식 민주주의를 도입해 결과적으로는 한국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끌고자 하는 “광범위한 사회개조 운동”²⁹⁾이었다. 이와 같은 농촌사회개조 운동들은 다양한 원조기구들이 접속해 협조하는 형태로 수행되었고, 신생활교육원이 양성하는 농촌지도자들은 현장에서 이 사업들의 방향과 내용을 한데 모아 지역민에게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었다. 때문에 문해력이 떨어지는 지역민들에게까지 지식과 정보가 전파되기 위해서는 아동부터 성인까지 아우를 수 있는 기초교육과 시청각 교재가 폭넓게 활용되어야만 했다.

대한 원조 사업 중 하나인 지역사회개발사업과 연계된 우크라이나와 유네스코의 농촌지역 사업으로는 ‘지역사회개발고용사업(Community Development Employment)’과 ‘지역공동개발사업(Community Coordinated Development)’ 그리고 ‘유네스코 학생건설대 활동’ 등이 있었다. 우크라이나가 주도한 지역사회개발고용사업은 1953년 4월부터 1955년 7월까지 수행한 원조 사업으로 총 464건의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적으로 공동 우물을 설치하고, 마을 진입로를 보수하고, 지역의 교량과 소규모의 제방 그리고 저수지를 건설했다. 농촌지역의 자조 사업을 통해 환경을 개선한다는 목표하에 시행한 이 원조 사업으로 92,000 이상의 가호가 혜택을 받았다. 이 사업은 1957년부터는 신생활교육원의 현장실습과 연계한 프로젝트로 재개되었다. 지역공동개발사업은 지역사회개발사업에 투입된 외국인 인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국제적인 자원봉사 기구가 외국인 인력 구성을 담당했고, 우크라이나는 운영 자금과 시청각 교재 등을 지원했다. 이 사업 역시 1957년 이후에는 신생활교육원이 양성하는 지역사회 지도자가 그 역할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³⁰⁾ 유네스코 학생건설대는 유네스코가 전 세계적으로 전개하고 있던 국제학생건설운동의 일환으로 조직된 단체였다. 전국 대학에서 모인 60여 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유네스코 학생건설대는 1954년부터 방학 기간을 이용해 수복지구의 실태를

29) 허은, 『미국의 헤게모니와 한국 민주주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8, 286쪽.

30) *Report of the Agent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for the period 1 July 1956 to 30 June 1957*, Op. cit., pp. 17~18.

조사하고 지역에서 봉사과 위문 활동을 하는 한편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생활 계몽운동을 전개했다.³¹⁾ 이들은 지역에 파견되기 전 신생활교육원의 단기 과정에 참가해 기초교육에 관한 훈련을 받았다. 이처럼 유네스코와 운크라가 한국의 농촌지역에서 수행한 프로젝트들은 신생활교육원이 지도하는 기초교육 그리고 미국 원조기구가 진행하는 농촌의 생활개선을 위한 기술협조 프로젝트인 지역사회개발사업과 연계되었다.

트루먼 행정부가 펼친 포인트 포 사업의 일환으로 저개발 국가의 농촌개발을 위해 진행된 지역사회개발사업은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기술협조를 통해 이어간 미국의 주요 원조 사업이었다. 유엔과 유네스코를 비롯한 유엔 산하의 기구들은 미국 원조기구들과 함께 저개발 세계에서 기술원조와 기술협조 중심으로 지역사회개발사업을 수행했다. 1950년대 초중반 미국은 이라크, 이란, 이집트,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필리핀 등의 저개발 국가들에서 기술원조와 기술협조를 통해 지역사회개발사업을 시행했다.³²⁾ 한국의 경우 전쟁 직후 운크라와 외국의 종교 단체 등에 의해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지역사회개발사업이 1957년 이후 ICA가 주관하며 본격적인 대한원조 사업으로 수행되었다. 국내 진행은 원조 업무를 담당하는 주한경제조정관실(Office of the Economic Coordinator, 이하 OEC)에 의해 이루어졌다.³³⁾ 한국전쟁으로 인해 구호의 성격이 강했던 지역사회개발사업은 1957년 이후 경제 자립과 발전을 위한 부흥의 성격이 강화되었다.³⁴⁾

이와 같은 배경에는 1956년 재선에 성공, 1957년 출범한 아이젠하워 제2기 행정부가 지향하는 원조 정책의 방향과 더불어 2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저개발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던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의 치열한 경쟁이 큰 영향을 끼쳤다. 1953년 출범한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직접적인 군사원조에서

31) 「유네스코 건설대서 수복지 실태 강연회」, 『경향신문』, 1954년 8월 20일, 2면; 「학생계몽건설대 수복지구 파견」, 『동아일보』, 1955년 1월 17일, 2면.

32) 한봉석, 「이승만정권 말기 지역사회개발사업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2006, 11쪽.

33) OEC의 업무는 1959년 주한미국경제협조처(United States Operations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USOM)로 이관되었다.

34) 공영민, 「1950년대 미국의 공보선전 전략과 공보실 영화제작소: 시라큐스 계약과 한미협조 교육영화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논문, 2018, 124쪽.

간접적인 방식으로 해외 원조의 비중을 높여갔다. 저개발 세계의 지원 방향도 직접 원조보다는 기술적인 원조를 통해 경제 원조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간접 원조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 방향을 조정해 나갔다. 한국의 지역사회개발사업이 본격화되는 1957년은 미국과 소련 양 진영의 경쟁이 고조되고 있던 시기였다. 1955년 4월 반동회의 이후 제3세계의 지형이 변화하기 시작했고, 1957년 1월에는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강제 접수로 인해 벌어진 소련과의 대립으로 중동 지역의 군사적·경제적 원조 내용을 담은 아이젠하워 독트린을 선언했다. 1957년 10월에는 소련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의 발사가 성공하며 미국에 큰 충격을 안기는 동시에 우주 경쟁의 시작을 알렸다. 상기한 기술 지원, 기술협조 사업과 연계되는 저개발 국가들이 미국과 소련이 진영 싸움을 벌이던 냉전의 접경지역이라는 점이 당시의 상황을 대변한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생활개선을 통한 경제 자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해 각자의 진영으로 포섭한다는 전제 뒤에는 기초교육의 강조와 확대·전파를 필수 요건으로 상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한국의 지역사회개발사업은 당연한 수순으로 지역사회의 리더인 농촌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신생활교육원과 연계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신생활교육원은 미래 지역사회의 리더가 될 학생들에게 기초교육에 관한 개념부터 활용방안에 이르기까지 이론과 실제 모두를 교육했다.

4. 농촌교도원 양성을 통한 시청각 교재의 활용과 시청각 미디어의 전파

신생활교육원에서 훈련받은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현장에 파견되어 기초교육을 전파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시청각 교재를 활용하고, 그 결과로 농촌지역에 시청각 미디어가 전파되는 과정과 그 의미의 유기적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신생활교육원의 교과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신생활교육원의 원장과 시청각교육을 담당했던 유네스코 측의 전문가들인 헤이든(Howard Hayden)과 헤르난데즈

(Hernández) 그리고 존스(Richard Kent Jones)의 보고서³⁵⁾에 바탕해 기초교육의 훈련 과정과 시청각 교재의 활용 방법을 정리한다. 그리고 농촌교도원 자격으로 지역에 파견된 졸업생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고, 이들이 농촌의 생활개선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국립영화제작소가 제작한 교육영화를 통해 확인한다.

1957년 11월 유네스코 전문가 인력으로 원장인 하워드 헤이든과 기초교육(멕시코), 농업(캐나다), 시청각교육(미국), 보건위생(네덜란드), 가정학과 영양(뉴질랜드)을 담당할 5명의 강사가 합류했는데, 이중 보건위생과 가정학을 담당한 이들은 여성이었다.³⁶⁾ 시청각교육을 담당한 테드 코넨트(Theodore Richards Conant)³⁷⁾는 다큐멘터리 작가로 신생활교육원이 설립되기 전부터 한국에서 운크라, 친구봉사회(Friends Service Unit, FSU) 등의 원조 기관들과 함께 한국의 실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인물이었다. 유네스코가 파견한 외국 전문가들 외에 강의 진행을 위한 보조 인력으로 한국 인력들이 합류했다. 강의를 담당한 인력 외에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 유네스코 본부와의 소통, 한국 정부 부처와의 협조를 담당하는 행정보좌관은 서울 사무소에 체류하며 업무를 진행했다.³⁸⁾ 상기한 과목 외에 한국 상황에 맞춰 인문과학을 교육할 강사진은 운크라-유네스코 교육계획사절단이 조언했던 것처럼 정부 부처의 행정가들과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의 교수진으로 구성되었다. 한국인 강사들은 농업지도에 필요한 농촌경제, 농촌사회학 등

35) 1956년 11월 초대 신생활교육원 원장으로 부임한 하워드 헤이든은 1957년 8월 이한에 앞서 7개월 동안 이루어진 신생활교육원의 운영 경과를 보고했다. 참고로 헤이든은 한국에 이어 태국의 기초교육 센터에 합류했다. 기초교육을 담당했던 헤르난데즈는 1959년 8월 이한에 앞서 한국 사업의 결과를 정리했다. 1958년 후반 전임자 테드 코넨트에 이어 시청각 담당으로 내한한 리처드 켈트 존스는 멕시코 기초교육센터에서 시청각교육을 담당했던 인물로 1959년 2월 시청각교육의 방향과 시청각부의 전체적인 프로그램, 수업 구성, 수업 교재, 강의 노트 등을 담은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Howard Hayden, Op. cit.; “Brief and Final Report on activities at the Korean Fundamental Education Center”, Op. cit.; Richard Kent Jones, “Korean Fundamental Education Center”, UNESCO, 1959 출처: UNESDOC Digital Library.

36) Howard Hayden, Op. cit., p. 2.

37) 테드 코넨트와 관련해서는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사연구소 엮음, 『이방인이 기록한 전후 한국, 영화: 시어도어 코넨트 컬렉션』, 2015 참고.

38) Howard Hayden, Op. cit., p. 2.

의 농촌지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과목 외에도 인류학, 사회학, 심리학 등의 인문 기초교육부터 보건학, 가정학, 지역사회개발론, 사상지도 과목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교육했다.³⁹⁾ 헤이든의 보고서에 수록된 강의 시간표를 통해 신생활교육원의 교과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표1] 1년 차 강의 시간표⁴⁰⁾

	9:00~9:45	9:50~10:35	10:35~10:50	10:50~11:40	11:45~12:30	12:30~2:00	2:00~3:00	3:15~4:45
월	영어	기초교육		가정	농업		보건위생	시청각
화	영어	가정		스터디 그룹 a. 기초교육 b. 농업 c. 보건위생	스터디 그룹 a. 가정 b. 기초교육 c. 농업		농업	농업
수	보건위생	기초교육		가정	원장 강의			
목	영어	가정		보건위생	기초교육		시청각	보건위생
금	영어	기초교육		농업	기초교육		시청각	시청각
토	9:00~10:00	10:15~11:15						
	스터디 그룹 a. 보건위생 b. 가정 c. 기초교육	스터디 그룹 a. 농업 b. 보건위생 c. 가정						

[표2] 2년 차 강의 시간표

	9:00~9:45	9:50~10:35	10:35~10:50	10:50~11:40	11:45~12:30	12:30~2:00	2:00~3:00	3:15~4:45
월	영어	가정		기초교육	보건위생		시청각	사회조사
화	영어	기초교육		가정	보건위생		시청각	시청각
수	기초교육	보건위생		농업	원장 강의			
목	영어	기초교육		가정	농업		스터디 그룹 a. 기초교육 b. 농업 c. 보건위생	스터디 그룹 a. 가정 b. 기초교육 c. 농업

39) 한봉석, 앞의 논문(2006), 44쪽.

40) 이 표는 헤이든의 보고서에 첨부된 강의 시간표를 번역해 정리한 것이다. Howard Hayden, Op. cit., pp. 14~15.

금	영어	가정		스터디 그룹 a. 보건위생 b. 가정 c. 기초교육	스터디 그룹 a. 농업 b. 보건위생 c. 가정		농업	농업
토	9:00~12:00							
	시청각							

강의 시간표를 통해 교육의 원활한 진행과 강사진과의 소통을 위해 영어 교육을 교과 과정에 포함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의 과목들은 유네스코의 기초교육 방향에 맞게 운크라-유네스코 교육사절단의 계획안대로 구성했음을 볼 수 있다. 농업, 가정, 보건위생을 기본으로 해서 상기한 인문과 학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기초교육이 주축 과목으로 구성되었고, 현장에서 보조 교재로 활용할 시청각 교재에 대한 교육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초 교육 시간에는 현장실습, 기초교육의 철학, 방법론, 문해력에 대한 이해, 기초교육을 위한 과학적 배경을 공부할 수 있는 문화인류학, 사회학, 사회심리학, 교육학 등이 포함되었다. 그 외에 현장실습을 대비해 사회조사법 입문 시간도 배정했다. 가정학 시간에는 가정 경제를 비롯해 식품영양과 의복과 직물 등을 수업했다. 보건위생 시간에는 공중 보건을 비롯해 모자 보건, 아동 보건, 가정 내 위생 개선 등 보건위생의 다양한 분야를 교육했는데, 특히 한국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보건위생 문제도 비중 있게 다루었다. 농촌 사회에 가장 필요할 수 있는 농업 시간에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부터 임업, 토양, 작물과 사료, 토지 개간, 원예, 양잠, 비료, 가축, 농업 경제, 금융 및 회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었다. 하지만 신생활교육원의 농업 교육은 “농업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생들이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농업 각 분야의 문제를 구별”해 이를 그들 자신이 습득한 지식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교육에 비중을 두었다.⁴¹⁾ 강사진들은 한국의 농업을 교육과정에 포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41) Ibid., pp. 6~9.

때 한국적 상황과 요건, 즉 3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여러 단체와 기관이 연계된 현실에 대응하기를 바랐다.

시청각교육은 담당 강사의 변화에 맞춰 교과 과정이 조정되었다. 상기한 것처럼 테드 코넬트는 시청각교육 전문가라기보다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영화인이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강의는 영화와 슬라이드 등 영상 교육에 치중된 측면이 있었다. 1958년 후반, 테드 코넬트는 미국의 원조기구인 ICA의 기술협조 프로젝트로 한국 공보실에 구축된 영화제작소에 미국 측 교육 인력으로 합류했다.⁴²⁾ 코넬트의 후임으로 미국 출신의 시청각교육 전문가인 리처드 켄트 존스가 투입되었는데, 그는 멕시코 파츠쿠아로(patzcuaro)의 유네스코 기술교육센터(CREFAL)에서 시청각교육을 수행한 경험⁴³⁾을 바탕으로 시청각교육의 방향과 과정을 수정했다. 참고로 CREFAL은 유네스코가 라틴아메리카의 기초교육 전파와 이와 관련한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기 위해 1951년 설립한 기관이었다. 존스는 코넬트의 시청각교육이 현장에서 활용하기 쉽지 않은 영상물 위주로 이루어진 것을 파악한 후 커리큘럼을 대폭 수정했다. 그는 자신이 떠난 후에도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본에 충실한 시청각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시청각교육 전문가로서 역할을 명확하게 밝혔다. 그리고 시청각교육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시청각 부문의 지휘 및 통제를 한국 측 담당자가 책임지도록 준비한다. 이것이 원칙이고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다른 모든 목표들은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2. 시청각 부서를 수립 목적에 맞게 기능하도록 구성한다.
3. 시청각 교재 선정, 사용, 제작,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그룹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한다.
4. 지역 단위의 시청각 제작소를 설립하고 유지하도록 한다.

42)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영상자료원, 앞의 책과 공영민, 앞의 논문 참고.

43) Richard Kent Jones, "Orientation of AV Centers", UNESCO, 20th February, 1959, p. 1, 출처: UNESDOC Digital Library.

5. 다른 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시청각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청각 자료를 준비한다.
6. 소모품과 장비를 유지 관리한다.
7. 지역 단위의 시청각 캠페인을 조직한다.⁴⁴⁾

존스가 밝힌 시청각교육 부서의 역할과 목표는 유네스코가 저개발 세계에서 수행하는 기초교육과 관련한 사업의 역할과 목표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저개발 세계의 사람들이 기초교육을 통해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그 결과로 기초교육의 영향력이 지역사회에서 국가 전체로 확장되는 것이 바로 유네스코 기초교육 사업의 최종 목표였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설명을 통해 콘텐츠를 준비해 자신들이 양성한 인력을 통해 배포하고 전파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네스코의 목표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가 밝힌 목표는 또한 시청각 교재가 기초교육에서 수행해야 하는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것은 첫째, 시청각 교재가 연령과 성별, 지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다양한 대상에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 둘째, 영화나 슬라이드 영사같이 경우에 따라 교육을 위해서는 장비가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기초교육센터인 신생활교육원이 다른 기관이나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협조해야 한다는 점, 셋째, 최종적으로 지역 단위의 조직과 캠페인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유네스코를 비롯한 원조기구들이 저개발 세계의 지역사회 리더들을 양성하면서 지향한 바를 잘 보여주는 지점이기도 하다. 원조기구들은 기초교육 전문가들을 배출하면서 이들이 “언어의 장벽이 없는 그림”을 비롯한 시청각 교재를 활용해 지역민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가장 도움이 되는 시청각교육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⁴⁵⁾ 따라서 지역의 리더들인 기초교육 전문가들은 언제 어디에서나 활용할 수 있는 간편하고 직관적인 시청각 교재들을 구비해

44) Richard Kent Jones, “Annual Report”, UNESCO, 1959, p. 1, 출처: UNESDOC Digital Library.

45) *The extension Home Economist around the world*, United States 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1957, pp. 63~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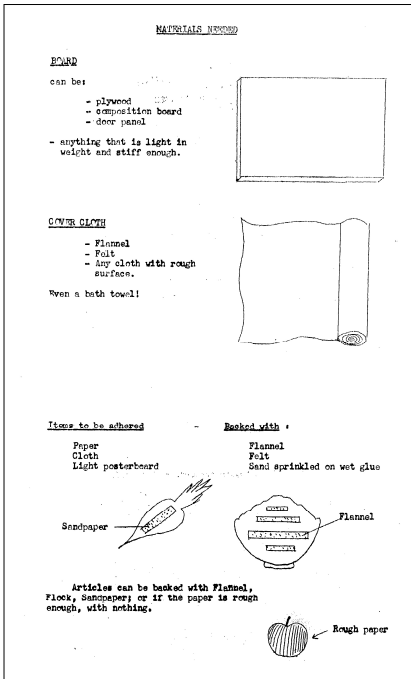
야 했다. 코넬트와 존스의 커리큘럼을 비교하면 이와 같은 시청각 교재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표3] 코넬트와 존스의 시청각교육 커리큘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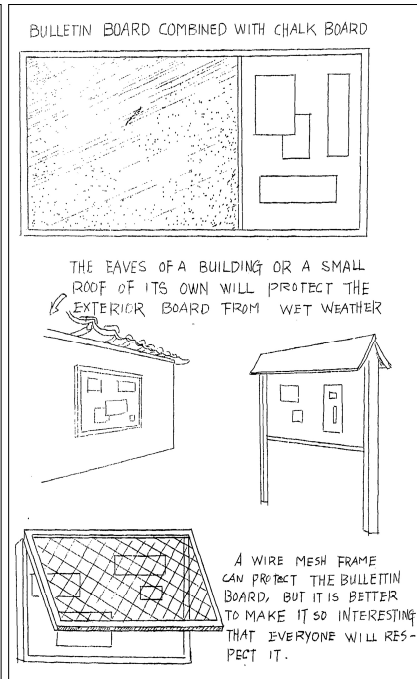
코넬트의 시청각교육 커리큘럼	존스의 시청각교육 커리큘럼
서론	학습 과정
포스터	커뮤니케이션 방법
35mm 슬라이드, 필름스트립	시청각교육의 사회적·인류학적 측면
영화 / 영사	사회의 물리적 측면
교육영화	시청각 방법과 그 위치
영화 제작 요소	시청각 자료 사용 계획
오디오 교재 - 테이프, 라디오	대본
사진	색채 이론과 실천
신문	구성, 설계 및 배치
사진과 전시	그래픽 교재
포스터	출판물
철판	시연과 진열
플란넬그래프	모형
인형	사진
	영사 교재
	오디오 교재
	드라마 교재
	소규모 예산의 시청각 제작소의 조직
	지역 단위 시청각 제작소의 조직
	시청각 재료의 시험과 평가

위의 표를 통해 코넬트의 커리큘럼이 영화에 치중된 것에 비해 존스의 커리큘럼은 이론적 접근과 실습을 통해 시청각교육의 배경부터 역할까지 숙지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문화된 것처럼 교육생들이 졸업 후 지역에서 맡아야 할 역할까지 가르치는 것이 이 과정의 최종

목표였다. 존스의 커리큘럼은 코네티의 커리큘럼과 차이점이 많지만 특히 두드러지는 부분은 간편한 재료로 시청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류나 천류를 이용한 교육을 강화한 점이다. 존스는 교육생들이 활동할 소단위 지역에서 가장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청각 교재로 포스터와 벽보, 전단, 플래카드, 그래프와 차트 등을 주목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색채'와 관련한 이론적 접근과 실습을 커리큘럼에 포함하고, 수업에서 다음과 같은 교재를 제작하는 실습 시간을 가졌다.



[그림1] 시청각 교재 제작법 예시



[그림2] 시청각 교재의 마을 게시판 활용법 예시

위의 그림은 존스의 시청각교육 커리큘럼에 포함된 교재 제작 예시이다. 존스는 색채 이론부터 그림과 모형, 그래프와 차트 등으로 손쉽게 시청각 교재를 제작할 수 있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과정을 본인이 손수 제작한 그림 자료들을 통해 교육했다. 그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문해력이 없

는 사람들까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단순한 선을 이용해 사물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림 수업도 진행했다. 이와 같은 시청각 교재 활용 훈련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된 모습은 공보실 영화제작소가 제작한 교육영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생활교육원의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들은 지역에 ‘교도원’이라는 이름으로 파견되었는데, 여성의 경우 ‘가정교도원’이라는 직함으로 불렸다. 남성 교도원들이 주로 농사 실무와 관련한 지도를 맡았다면, 가정교도원들은 농촌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가정생활 및 보건위생과 관련한 지도를 맡았다. 공보실 영화제작소가 ICA의 원조로 한국 정부 부처와 합작한 교육영화들의 상당수는 3장에서 정리한 지역사회개발사업과 관련한 영화들이었는데, 이 영화들은 농촌 사회의 개편을 목표로 가정생활부터 보건위생, 농사 지도, 마을 환경 개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재를 다루었다. 그중 신생활교육원의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영화로는 <농부를 돕는 사람들>(1958), <보리를 살리는 새비료>(1958), <가정교도원>(1959), <간편한 육아법>(1959), <개량부엌 만들기>(1959), <식생활 개선>(1959), <새로운 돼지 울>(1959), <발전은 협력에서>(1960), <개량복 만들기>(1961)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이 중에서 <가정교도원>과 <간편한 육아법>, <개량부엌 만들기>, <식생활 개선>, <개량복 만들기>는 기획 과정에서부터 농촌의 기초교육을 위한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었다. 농촌교도원의 활동과 지역사회개발사업의 목표와 효과를 중심에 둔 이 영화들에는 교도원들이 지역민들에게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소재와 주제에 맞춰 영화, 책자, 그림, 차트, 사진 등의 시청각 교재를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그림3] 지역의 4H 클럽 회원들에게 농촌지도를 하는 교도원의 모습. 왼쪽은 교도원이 농사교도소에서 제작한 책자를 배포하는 장면이고, 가운데와 오른쪽은 교도원이 차트를 활용해 이동식 돈사 제작을 설명한 후 회원들이 직접 돈사를 제작하는 장면이다.



[그림4] 농사교도소에서 시청각 교재 실습을 하는 교도원들의 모습



[그림5] 농사 교도 발표회장의 모습. 턴테이블, 영사기, 필름스트립, 슬라이드 필름 등의 시청각 장비 전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오른쪽은 교도원이 지역민들에게 필름의 원리를 설명하는 장면이다.



[그림6] 왼쪽은 가정교도원이 지역의 여성들에게 개량복 제작을 설명하는 장면이고, 가운데와 오른쪽은 마을 게시판에 보건위생 관련 포스터와 교육영화 상영회 광고가 부착된 모습이다.

위의 [그림3~5]는 <농부를 돕는 사람들>의 장면들이고, [그림6]은 <가정 교도원>의 장면들이다. 기초교육 과정을 마치고 농촌지도 활동을 시작한 교도원들은 농사교도소나 정부 부처 혹은 원조기구들이 제작한 전단이나 책자를 배포하고([그림4]), 현장에서 즉시 사용해야 하는 자료들 같은 경우는 차트와 모형을 직접 제작해([그림4, 6]) 교도 사업에 활용했다. [그림5]는 <농부를 돕는 사람들>의 배경이 된 경상남도 진양군에서 개최된 ‘농사 교도 발표회’를 담은 장면으로, 이 발표회에는 한국 농림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OEC를 비롯한 원조 당국의 담당자들이 참여해 교도 사업의 성과를 확인했다. 이 발표회에서는 [그림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시청각 교재와

장비들을 전시했을 뿐만 아니라 차트와 사진, 그림 등 시청각 자료들을 활용해 농업과 가정 경제, 보건위생 등 기초교육에 관한 다양한 사업의 정보와 성과를 알렸다. <가정교도원>은 한 교도원이 지역민들의 마음을 얻게 되는 과정을 통해 농촌지역의 여성들이 교육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이다. 이 영화는 적극적인 태도로 교육을 받고 환경 개선을 해나가는 주민과 반대로 교도원이 전달하는 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주민을 대비해 보여줌으로써 교도 활동의 효과를 강조한다. [그림6]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새로운 교육을 받아들인 주민들이 농촌 생활의 개선과 관련한 정보를 시청각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포스터와 벽보가 부착된 게시판은 존스의 커리큘럼 자료에 첨부되었던 제작법이 영상으로 시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장면들 외에도 <가정교도원>의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간편한 육아법>, <개량부엌 만들기>, <식생활 개선>, <개량복 만들기>에는 잡지와 리플릿, 차트 등을 이용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이 담겼다. 이 교육영화들은 교도원들의 실연과 지역민들의 참여를 묘사함으로써 영화 자체가 ‘교육 방법(How to do it)’을 담은 상세한 설명서로 기능하도록 했다. 원조기구들과 한국 정부 부처는 교도원들의 지도와 지역민들의 참여를 보여주는 이 영화들을 통해서 기초교육과 농촌 개조를 위한 원조 정책이 한국 사회에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운동으로서 받아들여질 것을 요망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교육영화를 비롯한 시청각 교재들은 농촌의 소단위 지역까지 시청각 미디어가 확대되는 데 매개로 작용했다.

5. 나가며

신생활교육원에서 기초교육 과목을 담당했던 헤르난데즈의 보고서에 의하면 1957년 입학한 24명의 1기생 중 21명이 1958년 3월 말에 졸업해, 농업 연구소에 3명, OEC에 3명, 지역사회개발중앙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Community Development, NACOM)에 15명이 취직했다. 1959년 3월에 줄

입한 2기생 중에서는 4명의 여성과 5명의 남성이 NACOM 소속의 농촌교도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⁴⁶⁾ 참고로 1기 수료식 관련 자료에는 특별히 2명의 학생이 교육영화 제작 특수훈련을, 1명의 학생이 사진술과 슬라이드 필름 제작 특수훈련을 받았다⁴⁷⁾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정보를 바탕으로 신생활교육원이 교육영화를 시청각 패키지 프로그램의 주요 부분으로 설정하고, 영상장비의 운영기술을 전문적으로 교육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졸업생 중 다수가 취직한 NACOM은 지역사회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1957년 11월 설치된 기관으로 미 원조 당국과 한국 정부 부처의 행정관들이 참여해 사업을 관할했다. 지역사회개발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1958년도 예산 5천만 환, 시범부락 10개, 지도원 22명이었던 규모는 1959년 예산 4억 9천만 환, 시범부락 121개, 지도원 83명”으로 증대했고, “1961년 5월경까지 NACOM이 지원받은 정부 지원금은 6억 5천만 환”에 달했다.⁴⁸⁾ 그 영향으로 신생활교육원도 NACOM이 모집한 58명의 교도원들을 대상으로 1959년 3월부터 6월까지 단기 교육을 실시했다.⁴⁹⁾ 이는 지역사회개발사업의 규모가 확대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신생활교육원의 체계가 자리잡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것은 또한 존스가 밝혔던 것처럼 1959년 9월 신생활교육원의 운영을 한국 정부에 이양할 때까지 유네스코가 기관의 체계를 완성하고, 기초교육과 시청각교육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한국 실정에 맞춰 전수했다는 것을 뜻했다.

안정적인 교육 시스템의 구축은 정권의 프로파간다를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1959년 6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던 자유당은 같은 해 4월 문교부에 농어촌의 문화정책 계획을 요청했다. 이 문화정책은 “농어촌에 순회 문고를 두고, 우리나라 산업발전상 등을 촬영한 영화를 전국 순회 상영하는 동시에

46) “Brief and Final Report on activities at the Korean Fundamental Education Center”, Op. cit., p. 1.

47) 『24일 수료식 유네스코 신생활훈련원에서』, 『조선일보』, 1958년 3월 23일, 2면.

48) 허은, 앞의 책, 286쪽.

49) “Brief and Final Report on activities at the Korean Fundamental Education Center”, Op. cit., p. 2.

영화녹음 강연을 개최하고, 성인학교를 1군(郡)마다 두어 문맹자들의 교육을 실시”하는데, 이 “성인학교의 교사를 신생활교육원의 졸업생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⁵⁰⁾ 이와 같은 배경에는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이 선거를 앞두고 전국 농어촌의 작은 단위 지역까지 정권의 홍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선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기획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교육영화, 라디오, 잡지를 비롯한 시청각 미디어의 전파는 ‘시범마을’ 구축을 비롯한 농촌 개조사업의 시작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것은 본문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농촌지역의 환경 개선에 기술의 지원과 전수가 밑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활동이었다. 따라서 ‘마을’에 기초교육 전문가인 교도원들이 투입되면 전기의 공급과 라디오의 보급, 영화의 순회 상영, 일간지와 『새힘』⁵¹⁾ 같은 농촌 잡지 등의 무료 배포가 함께 이루어졌다.⁵²⁾ 따라서 이러한 특혜를 둘러싸고 신생활교육원과 한국 정부 부처, 원조기구 간에 갈등 상황도 벌어졌다. 헤르난데즈의 보고서를 통해 신생활교육원의 이양 과정에서도 유네스코의 목표와 방향성을 유지하기 위해 갈등을 겪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⁵³⁾

1950년대 후반 한국의 작은 지역들에서 벌어진 다양한 원조기구들과 한국 정부 부처의 협조와 갈등, 그리고 그 속에서 진행된 교도원들과 지역민들의 만남은 가시적인 환경의 변화부터 지역민의 가치관에 이르기까지 여러 변화를 가져왔다. 1959년 한국 정부에 이양한 후 신생활교육원은 문교부 산하 농촌지도자훈련원으로, 1961년 12월 26일에는 다시 농림부 산하의 농림부훈련원으로, 1962년 3월에는 농촌진흥청에 흡수되며 그 명칭은 달라졌지만, 유네스코의 기획하에 진행된 기초교육과 시청각교육의 기본 목표와 방법은 시청각 미디어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파·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0) 『기록영화 강연회의 순회 등 산마을, 갯마을에 문화영화를! 문교부에서 적극 추진』, 『조선일보』, 1959년 4월 3일, 3면.

51) “농촌 사람들을 위한 잡지” 『새힘(New Strength)』은 USOM이 주한미국공보원(USIS-Korea), 태평양 미군 방송 및 시각 활동 본부(US Army Broadcasting & Visual Activity, Pacific)와 연계하여 발간했는데, 1960년 기준으로 매달 국문 30만부, 영문 200부를 인쇄했다.

52) 한봉석, 앞의 논문, 127~128쪽.

53) “Brief and Final Report on activities at the Korean Fundamental Education Center”, Op. cit., pp. 3~4.

■ 참고문헌

자료

- "Brief and Final Report on activities at the Korean Fundamental Education Center", 31st July, UNESCO, 1959.
- "Conferenc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Held at the Institute of Civil Engineers, London, from the 1st to the 16th, November, 1945", UNESCO, 1945.
- "Fundamental Education Common Ground for All Peoples", UNESCO, Paris, March 21st, 1947.
- "Fundamental Education Meeting of Experts, 26th April to 1st May 1948", UNESCO, 1948.
- Howard Hayden, "Report on the Korean Fundamental Centre", 15th June, UNESCO, 1957.
- "Meeting of Experts on Fundamental Education, Paris, 17, 18, 19 April 1947", UNESCO, 1947.
- Report of the Agent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for the period 1 July 1956 to 30 June 1957*, Vol. 26, File 2, New York, 1957.
- Richard Kent Jones, "Annual Report", UNESCO, 1959.
- _____, "Korean Fundamental Education Center", UNESCO, 1959.
- _____, "Orientation of AV Centers", UNESCO, 20th February, 1959.
- "Summary description of associated projects in fundamental education", Bangkok, 26th, November–10th, December, 1951.
- UNESCO/UNKRA Educational Planning Mission to Korea, "Rebuilding Educ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Final Report of the UNESCO/UNKRA Educational Planning Mission to Korea", UNESCO, 1953.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https://archive.history.go.kr>
- 한국정책방송원 e 영상역사관 <https://www.ehistory.go.kr/>
- UNESCO, UNESDOC Digital Library <https://unesdoc.unesco.org/library>

단행본

-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사연구소 엮음, 『이방인이 기록한 전후 한국, 영화: 시어도어 코넨트 컬렉션』, 2015.
- 허 은, 『미국의 헤게모니와 한국 민족주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8.
- 50 years for education*, UNESCO, 1997.
- The extension Home Economist around the world*, United States 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1957.

논문

- 공영민, 『1950년대 미국의 공보선전 전략과 공보실 영화제작소: 시리큐스 계약과 한미협조 교육영화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논문, 2018.
- 오준호, 『한국 영화제도의 형성과정: 유네스코의 기초교육 프로그램과 교육영화를 중심으로』, 『문학과 영상』

Vol.19, no.2, 2018.

- 이순진, 『한국전쟁 후 시청각 미디어의 배치와 냉전의 미디어 네트워크』, 『한국학연구』 vol. 48, 2018.
- 이창익, 『1950년대 미국의 대한교육원조와 교육계의 동향』,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04.
- 한봉석, 『1950년대 말 농촌지도의 한 사례 - 지역사회개발사업 현지 지도원의 활동을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19), 2008.
- _____, 『1950년대 미국의 대한 기술원조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2017.

Fundamental Education and Audio-visual Education in the Underdeveloped World in the 1950s

–Focusing on UNESCO’s Activities and
the Korean Fundamental Education Center –

Kong, Youngmin*

This paper examined how UNESCO actively conducted “Fundamental Education” in the underdeveloped world and used audio-visual media and audio-visual aids as a means of assistance, and revealed the process and meaning of Fundamental Education in Korea through the Korean Fundamental Education Center(KORFEC) and the educational films of OPI Motion Picture Production Laboratory. The background to the spread of audio-visual media in Korea was the global educational aid activities carried out by UNESCO. As a result, the KORFEC, an institution for nurturing Fundamental Education experts, had played an important role. The network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terlocked in rural areas of Korea under the common goal of rural reform through Fundamental Education represents the fierce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at the border of the Cold War. The educational activities of community leaders and the use of audio-visual materials were composed of key themes in the educational film for rural enlightenment produced and distributed jointly by the Korean government ministries and the US aid agencies. Through the encounter of “Fundamental

* Visiting Researcher of INHA University Center for Korean Studies

Educat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that occurred in Korean rural areas in the 1950s, it was confirmed that audio-visual aids as a medium of Fundamental Education influenced the spread of audiovisual media, including movies and radio in Korea and other underdeveloped worlds.

Key words: UNESCO, Fundamental Education, audio-visual education, audio-visual aids, UNKRA, Korean Fundamental Education Center(KORFEC), Community Development, OPI Motion Picture Production Laboratory, educational films, *Nongbureul dopneun Saramdeul*, *Home Agent*

